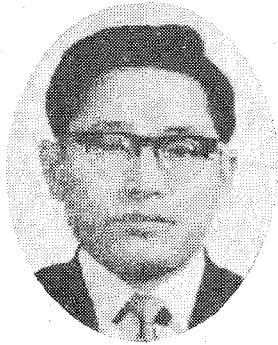


借款企業의 問題點



서울대학교 商科大學
助教授

林 鍾 哲

1. 머릿말

借款企業에 관한 實態調査는 이미 여러 機關에서 이루어진 바 있고 그 運營의 不經濟와 不合理는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또 최근 PVC 産業에 대한 政府當局의 統合政策에서 보듯 具體的인 政策措置도 여러가지로 강구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借款企業에 대한 問題性解明이 편집자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은 아직도 借款企業體가 허다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또 비단 企業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國民經濟的인 입장에서도 그 時急한 해결이 요청되고 있다는 證左라고 볼 수 있다. 이문제는 대체로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借款企業이 한국경제의 현재 및 장래를 위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일 현재에 있어서의 借款企業의 國民經濟的 比重이 작다거나 또는 아주 가까운 將來에 무시할 수 있을만큼 작아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企業의 문제로서 커다란 관심을 경주할 필요가 없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차관기업이 현재와 또 먼 將來에 이르기까지도 커다란 國民경제적 的의를 갖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私企業의 문제로서 간단히 무시해 버릴 수는 없고 당연히 그 國民經

濟的 意義에 相應하는 考慮를 하여야 한다.

둘째로 차관기업이 國民經濟의 關心事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借款企業의 어떠한 點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하여 생각을 기울여야 한다. 이경우 問題性에 대한 基準은 첫째는 私企業의 經濟性일 수 있고 둘째는 國民經濟의 對內的 所望性일 수 있으며 끝으로는 國民經濟의 對外的 所望性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두가지 측면으로부터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하여 마지막으로 우리는 借款企業을 어떠한 方向, 어떠한 모습으로 誘導, 育成해 나가는 것이 작게는 借款企業을 위하여, 그리고 크게는 國民경제전체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

2. 借款企業의 經濟的 意義

資本의 축적이 적은 開發除上國에서 그 經濟成長의「토포」를 人爲的으로 提高하고자 할 때는 불가피하게 對外負債의 累增을 가져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현상이다. 뿐만아니라 資本不足이 급속한 經濟成長을 저해하는 최대의 要因일 경우는 對外負債의 累增(具體的으로는 借

◇ 特別企劃 I ◇

款企業體의 量的增加)은 經濟成長의「넵포」를 國民的으로 所望스러운 水準에까지 提高할 수 있는 것이므로 借款이 어떠한 條件으로 획득되었느냐 하는 것과 內向的 工業化에 投入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外向的 工業化에 투입되었느냐 하는등의 몇가지 基準에만 相當한다면 借款은 多多益善이라고 조차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開發途上國의 例外가 아니어서 人爲的으로 經濟成長의「넵포」를 提高하고자 하였을 때 최대의 障礙요인으로 등장한 것은 資本不足이었고 그 重要供給源이던 無償의 公共援助가 줄어들었을 때 借款獲得에서 그 脫出口를 찾고자한 것은 당연하였을 뿐더러 賢명한 處事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借款負債累增에 의한 成長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對內 對外的인 不均衡要因이 커졌다는 데서부터 胚胎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借款企業의 國民經濟의 比重이 너무 급격히 커진데서 문제가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9년에 東洋제멘트工場의 擴張을 위하여 2,140千「달러」의 DLF借款을 얻은데서 시작된 借款企業은 1968년 12월 31일현재 264件 1,416,162千「달러」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에 의한 直接投資事業까지도 합한다면 377件 1,508,123千「달러」에 달하나 이는 비록 한국인의 資本參加 또는 經營參加를 수반하는 企業이라고 할지라도 借款企業의 問題點이라는 편집자의 要請對象에는 분명히 들지 않을 것이므로 고찰의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 確定借款額 1,416,162千「달러」중 1968년 9월 30일 현재 100,012千「달러」의 元利금이 상환되었으므로 債務殘高는 대략 13억「달러」에 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1968년의 우리國民總生産의 대략 3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959년에 있어서의 借款額 2,140千「달러」는 그해의 韓國國民總生産 2,275,484千「달러」의 0.1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 불과 10년 사이에 30.0%로 커졌으므로 負債急增의 重壓이 국민경제에 여러가지 구김살을 造成하였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그중 가장 현저한 것을 든다면 하나는 元利金

外債의 比重 (千달러)

	GNP	外債	外債/GNP
1962	2,510,613	76,667	3.0%
1963	2,729,789	145,378	5.3
1964	2,962,043	244,895	8.3
1965	3,246,329	421,881	13.0
1966	3,804,448	687,839	18.1
1967	4,268,047	942,478	22.1
1968	4,694,852*	1,447,480	30.8

* 1967年對比 10%增加를 假定

償還負擔이 外換部門에 미친, 그리고 앞으로도 미치게 될 重壓이고 다른 하나는 漸增的으로 導入되는 外資에 對應할 內資調達能力의 차질에서 오는 「인플레이」 및 經濟秋序의 의곡이다. 우선 첫째 문제를 생각하면 經濟企劃院資料에 의할때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元利金償還額은 1962년의 1,058千「달러」에서 1967년의 35,795千달러로 급속히 커져가고 있다. (1968년에 있어서는 1~9月사이에 30,631千달러를 支拂하고 있으므로 年率로는 40,841千달러에 달할 것이다.) 그런데 同期間중 輸出高는 56,702千달러에서 1967년의 320,226千「달러」로 늘었지만 外貨稼得率의 하락으

外債償還의 負擔

	輸出高 (A)	外貨稼得額 (B)	元利金償還額 (C)	C/B
1962	56,702	47,108	1,058	2.2%
1963	85,337	63,744	4,587	7.2
1964	115,147	79,048	5,922	7.5
1965	172,257	118,378	7,697	6.5
1966	248,360	174,228	14,322	8.2
1967	320,226	238,158	35,795	15.1

로 外貨受取額은 1962년의 47,108千달러에서 1967년의 238,158千달러로 증가한데 불과하므로 外貨受取額에 대한 借款元利金償還額의 크기로는 1962년의 2.2%에서 1967년의 15.1%로 급격히 커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것은 相對的으로 볼때 借款에 의하여 건설된 企業으로부터의 生産物이 輸出增加에 미친純效果의 크

기가 그 企業建設에 소요된 借款에서 發生한 負擔이 對外支拂增加에 미친 純效의 크기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借款企業의 生成, 發展은 現在에 있어 外換部門에 구김살을 가져오는 作用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借款條件이 좋지 않았고 借款에 의한 企業建設이 輸出産業 중심의 外向的 工業化의 길을 걷지 않고 輸入代替 産業 중심의 內向的 工業化의 길을 걸었다는 데 크게 연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是正되지 않는 한 (既導入, 既建設된 것에 대하여서는 이미 是正의 길이 없어졌지만) 借款이 外換部門에 미칠 重壓은 더욱 커질 것이고 따라서 微視的으로는 借款企業의 合理化가 당연히 계속적으로 문제되어야 한다.

둘째 外資가 이처럼 급격하게 增加하였다는 것은 外資에 對應할 內資動員과 관련하여 한국 경제에 커다란 구김살을 가져왔다. 이 구김살은 인플레이션 金融秩序의 의곡이란 형태로 나타난다. 經濟企劃院의 資料에 의할 때 1968년 12월 31일 현재 확정된 1,508,123千「달러」의 차관중 그 62.6%에 해당하는 944,146千「달러」의 物資가 실제로 導入되었다. 이것은 그 建設 및 運營과 關聯하여 그에 適切히 對應하는 규모로의 內資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借款에 의한 物資導入이 1962년의 7,349千달러에서 1968년의 356,875千「달러」로 불과 6년 사이

內總固定資本의 形成(이것은 源泉적으로는 그만큼의 貯蓄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1962년의 486.2억원에서 1968년의 3,840.1억원으로(不變市場價格으로는 840.5억원에서 3,101.2억원으로) 커졌다는 것은 外資導入이 國內總固定資本 形成에 적극적으로 寄與하였다고 事後的, 平面的으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國內貯蓄의 遞增的 供給에 큰 壓力을 가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相對적으로 보더라도 國內總固定資本 形成에 대하여 外資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2년의 0.9%에서 1968년의 11.6%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外資에 對應할 所要內資의 比率을 50%로 假定한 위에서의 計算이므로 가령 100%의 內資를 필요로 한다면 그 比率은 2倍로 커지고 25%를 假定한다면 2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런데 1962~1968년간에 있어 國民所得의 增加는 100%에 미달하는데 物資導入額 따라서 그에 對應될 國內貯蓄은 500%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外資에 관련된 內資動員을 위한 貯蓄負擔이 커지고 이것은 貯蓄性向一般 그리고 특히 限界貯蓄性向의 급격한 上昇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要求에 國民이 自發적으로 呼應할 能力이 不足할 때 그것은 「인플레이」를 誘發한다. 최근 꾸준히 進行되고 있는 소위 投資인플레이 또는 開發인플레이라는 것은 그 대부분이 外資導入의 急增에 內資動員能力이 미처 못따라가는 데서 야기된 것이라 보아야 한다.

企業과 國民의 自發的 貯蓄供給能力을 外資와 관련된 貯蓄需要가 초과할 경우 「인플레이」는 誘發되는데 한국 경제의 현실에 있어 그것은 特惠金融과 便也貸出과 같은 變則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企業의 金融秩序를 파괴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社會正義도 유린하는 것이므로 이같이 所望스럽지 못한 것은 극력 회피, 하여야 한다.

3. 借款企業의 問題

私企業의 문제로 次元을 낮추어서 생각할 때 借款企業의 問題는 그 規模의 最適點未達과 그 性格의 內向性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

內資調達의 壓力

區分	物資導入額 A (千달러)	所要內資(外資國內總固定 의 50%假定) B (千원)	資本形成 C (억원)	B/C %
1962	7,349	477,685	486.2	0.9
1963	71,692	4,659,980	680.4	6.9
1964	24,049	3,006,125	805.4	3.7
1965	48,057	6,007,025	1,176.4	5.1
1966	197,322	24,665,250	2,059.9	11.9
1967	238,802	29,850,250	2,640.0	11.3
1968	356,875	44,609,375	3,840.1	11.6
	944,146			

에 48.5배나 커졌다는 사실은 內資調達에 관련된 壓力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國

◇ 特別企劃 I ◇

지는 表裏一體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또 發展段階史的으로 볼 때 불가피하였던 점도 없지는 않다.

전체적으로 볼 때 借款은 264 件에 1,416,562 千달러이었으므로 1 件 1 企業을 假定할 때 企業當規模는 5,214 千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같은 借款額중에는 利子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割引計算하여야 하고 한편 外資에 對應하여 動員投入된 內資가 있으므로 이는 割増計算하여야 하므로 실제 규모는 다소 이러한 平均値보다 커질 것이다.) 그런데 이 論說와 특히 관련되는 것은 商業借款에 의한 民間企業이므로 財政借款을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198 件에 938,993 千「달러」, 즉 1 件當 4,742 千「달러」로 줄어든다. 施設規模 5 백만「달러」미만의 企業이라고 해도 큰 것은 아닌데 만일 우리가 仁川火電 등 社會間接資本에의 投資 14 件과 尿素肥料工場, 蔚山精油工場 등 4 개 大企業은 例外的으로 큰 것으로서 제외 한다면 나머지는 180 件에 549,818 千달러로 1 企業당 3 백만「달러」를 약간 넘는 규모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平均値的인 것에 불과하지 現實的으로는 1 백만달러이하의 것이 전체의 過半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企業規模가 작다는 것은 借款企業으로 하여금 規模에 의한 經濟라는 利益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여러가지 所望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중 가장 현저한 것을 흔히 國際單位未達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零細性이 製品의 原價高를 가져오고 原價高는 한편으로는 高物價를 助長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市場의 狹少를 가져옴으로써 또다른 原價高를 誘發한다는 惡循環을 가져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이 借款企業의 經營을 더욱 곤란한 것으로 만들어 企業成長을 阻害하는 동시에 國民犧牲을 加重시킨다.

借款企業의 零細性을 초래한 原因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國內市場이 狹少하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拙劣한 外資導入政策의 결과 그 狹少한 國內市場마저 數個의 企業에 의하여 分割되었다는 사실이다. 國內市場의 狹少하다는 것은 企業의 立場에서 政府의 立場

에서 보나 어찌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方法이 없는 것은 아니다. 政府當局이나 企業이 비단 國內市場뿐만 아니라 海外市場에 대하여서도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한 다음 이같은 科學的 市場調査에서 企業規模를 결정하였다면 문제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경우 政府나 企業의 行動을 보면 國內市場에 맞는 크기로 企業의 規模를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國內需要를 초과하는 供給剩餘는 海外市場에 수출한다는 莫然한 짐작으로 企業規模를 결정하여 왔던 것이다. 보다 더 올바른 「借款에 의한 經濟建設」, 「借款에 의한 企業育成 政策은 첫째 技術的인 면에서 生産의 最適을 실현할 企業規模를 한국경제의 諸與件에 비추어 결정하고 그다음 현재 및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의 國內需要를 豫測하고 國內需要가 最適規模下의 生産을 上廻하는 경우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同種企業을 허용하고 만일 下廻하는 경우에는 輸出可能性을 科學的으로 면밀히 측정한 이후 수출전망이 큰 産業에만 企業建設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産業은 借款에 의한 企業建設을 허가하지 말았어야 했다. 왜냐하면 諸般의 基礎的 生産設備가 적고 資本도 不足한 한국에서 이상과 같은 條件을 충족시켜 주는 産業部門에 대해서조차는 충분한 資本을 配分한 能力이 아직은 없고 따라서 國內市場과 輸出可能性까지 합해서 生産의 最適規模下의 供給을 전부 흡수하지 못한 部門에까지 資本을 配分한다는 것은 經濟性原理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現實은 政府의 能力不足과 企業의 私慾으로 해서 예컨대 PVC 産業의 경우와 같이 單一企業으로도 生産의 最適을 실현코자 할 때 國內市場의 不足함에도 불구하고 5 個의 企業을 亂立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借款企業을 私的 收益性이란 立場에서 보았을 때의 그缺陷은 이상에서 보았다. 이제 이를 國民의 立場에서의 所望性이란 기준에서 고찰해 보기로 하자. 借款企業이란 外國에 대한 債務위에 세워진 企業이지만 債權債務관계는 債權者와 借款企業사이에서만 끝나는 것이아니다. 최악의 경우 그 債務은 國民 전체에게 轉嫁되어 代拂되게 되며 最善의 경우라도 物資로 얻어온 借

款을 對外支拂手段으로 上환해야 하므로 外換資源이 不足한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外換使用의 擇一的 用途制限이라는 희생을 국민에게 준다. 극단적인 예를 假想해본다면 外換使用이 자유로웠던 국가가 工業化를 위해 外債를 많이 얻고 그결과 元利金償退負擔이 保有外換보다 커짐으로써 換統制를 하게 되고 따라서 국민이 海外旅行기타가 제한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印度의 事例은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借款企業의 문제성은 그것이 輸入代替를 위주로 한 企業建設에 始終하고 적극적으로 海外市場을 상대로 한 輸出産業育성이 아니었는데서 찾아진다. 즉 外向的 工業化가 아니라 內向的 工業化를 함으로써 국민생활에 구김살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물론 工業化를 外向的으로 추진하려면 資本所要는 커지고 技術 및 技能의 水準로 높을뿐더러 적극적인 海外進出意欲 소위 export-mindedness를 政府와 더불어 企業이 가져야 한다는 追加的인 要求가 나타난다. 따라서 외국과의 經濟的 交流가 적었던 開發途上國에서는 쉽사리 充足시키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다. 또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産業部門이 적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輸入代替産業은 그것이 一定한 단계를 경과한 후에 輸出産業으로 轉換할 수 없다면 企業으로서 存續할 가능성을 차츰 상실해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工業이 輸入代替産業으로서 육성될 때 주어진 諸種의 保護政策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그때 그企業이 海外企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그이전에 이미 海外로 進出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 지니고 있어야 한다. 19世紀와는 달리 무한정 保護政策을 강구할 수 없는 지금에 있어서는 企業은 하루 빨리 國內市場을 飽滿시키고 海外로 進出할 것을 서둘러야 한다.

4. 맺는 말

이상의 고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借款企業은 매우 큰 國民經濟的 意義를 갖게 되었고 앞으로 그 義意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것이 증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資本不足國이 開發初期에는 반드시 경험하여야 하는 일이므로 借款의 累積이나 借款企業의 증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借款의 증가가 너무 급속하여 內資動員能力和 均衡을 잃어가고 있으므로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內資動員의 극대화를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차관의 증대를 규제하여야 한다. 또 借款에 의한 工業建設은 대부분 內向的 性格을 갖고 이루어졌는데 이는 借款企業의 零細性和 外換部門에의 漸增하는 壓力을 가져오므로 조속히 是正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當面課題는 다음의 두갈래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앞으로의 借款은 첫째 生産의 最適을 실현할 규모로, 둘째 적극적으로 海外市場을 상대로 할 수 있는 産業을 중심으로 許可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로 PVC業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기왕에 건설된 借款企業體를 合理的으로 統合하여 事後的으로나마 最適規模에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事後的으로 統合한다는 것은 기왕에 건설된 企業이 그 所在를 地理적으로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實效를 거두기가 힘들다. 規模에 의한 經濟는 이때는 거의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리한 統合은 피하고 業者의 過當競爭 그 價格形成의 不當性和 反社會性만을 규제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좋다.